

‘여자친구’ 6명 눈물 펑펑... “청순~섹시함까지 많이 컸네”

여자친구의 성장 압축한 첫 온라인 콘서트 열어
90분 가량 짧은 콘서트...과거·현재·미래 녹여내

“인이어(In-ear 이어폰)으로 (여자친구 팬덤명인) 버디의 응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따로 (응원소리를) 따서 (제작진이) 넣어 주신 것 같은데, 마음이 몽클했어요.”
‘핑거팁’ 무대 도중 얼굴에 웃음을 띤 그룹 ‘여자친구’ 리더 소원은 정작 이 곡의 무대가 끝난 뒤 눈가가 축축해졌다.
결국 콘서트 막바지에 무대 앞 객석이 아닌, 대형 스크린에서 응원봉을 흔드는 팬들의 모습이 등장하자 여섯 멤버들은 너나할 것 없이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10월 31일 오후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연 온라인 콘서트 ‘2020 지프랜드 온라인 콘서트 지프랜드 지콘(G C:ON)’은 여자친구의 성장을 압축한 무대였다.

90분가량의 비교적 짧은 콘서트였지만, 여자친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골고루 녹여냈다.
2015년 데뷔한 여자친구의 소속사 쏘스 뮤직은 여자친구의 세계관을 나름 쌓아왔다.
쏘스뮤직이 빅히트 레이블로 편입된 뒤 세계관을 새로 정리하고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시간을 달려서’, ‘너 그리고 나’, ‘유리구슬’, ‘오늘부터 우리는’ 등 ‘과워 청순’으로 대변하는 초창기 곡들에서 여전히 풋풋함을 뽐냈다.
지난 7월 발매한 앨범 ‘화:송 오브 더 세이렌(回:Song of the Sirens)’ 타이틀곡 ‘애

플’은 기존 여자친구 모습에서 보기 힘든 고혹·섹시함을 강조했다.
특히 핼러윈데이인 이날 ‘애플’ 무대에서는 기존 ‘청량 마녀 콘셉트’에 피 분장을 더한 모습으로 신선함을 안겼다.
미래를 예고한 무대도 이어졌다.공개를 앞둔 새 정규앨범 ‘화:발푸르그스의 밤(回:Walpurgis Night)’에 담긴 유닛곡을 처음 선보였다.
소원과 임지의 ‘베터 미(Better Me)’는 쿨함, 유주와 은하의 ‘나이트 드라이브(Night Drive)’는 감미로운, 예린과 신비의 ‘시크릿 데이(Secret Diary)’는 로맨틱했다.
이후 ‘화:발푸르그스의 밤’의 타이틀곡 ‘마고(MAGO)’ 티저가 깜짝 공개되기도 했다.
소원은 세 번째 정규 음반인 이 앨범에 관해 “여자친구의 성장 서사를 집약한 대망의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온라인 콘서트는 과거와 현재를 결



산하는 에필로그이자, ‘화:발푸르그스의 밤’ 여자친구는 ‘화:발푸르그스의 밤’을 오는 9일 공개한다.의 프롤로그인 셈이다.

레인보우, 지속 결혼 축하...조현영 “신부 안우는데 대성통곡”

각별한 애정 드러내



그룹 ‘레인보우’ 출신 멤버들이 최근 백년가약을 맺은 지속의 결혼을 축하했다.
김재경, 고우리, 조현영, 오승아 등 레인보우 출신 멤버들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속의 행복을 비는 메시지를 일제히 올렸다.
레인보우 리더인 김재경은 지속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적었고, 고우리는 결혼식 당일 찍은 사진을 첨부하며 “이쁘다 우리 지속이. 행복하세요. 레인보우 1호 결혼”이라고 밝혔다.
조현영은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안 울어야지 했는데 결국 대성통곡을 했다. 신부는 안 우는데 내가 다 울었다. 웃다 울다 너무 행복한 결혼식이었다”며 “지속 언니 행복해야 해. 정말로 사랑해”라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오승아 역시 “사랑하는 가족, 우리 지속이.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라며 행복을 기원했다.
지속은 지난달 31일 프로듀서 이두희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열애를 공식 인정했으며 올해 MBC TV 예능프로그램 ‘부러우면 지는거다’에 동반 출연한 바 있다.
2009년 7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한 레인보우는 ‘에이(A)’, ‘투 미(To Me)’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지만, 2016년 해체됐다.
해체 후에도 끈끈한 유대를 이어가고 있는 멤버들은 동반 촬영한 웨딩 화보 등을 통해 남다른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뉴스스

지드래곤, 1년만에 컴백 시동...신곡 작업 한창

한류 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이 지난해 10월 전역 이후 약 1년 만에 본격적인 컴백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2일 가요계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현재 새 앨범 발매를 위한 곡 작업에 한창이다.
지드래곤이 솔로로서 마지막으로 발매한 앨범은 지난 2017년 6월 ‘권지용’이다.
빅뱅 멤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공개한 곡은 2018년 3월 ‘꽃길’이다.
2006년 데뷔한 빅뱅은 ‘거짓말’ ‘마지막 인사’ 등의 히트곡을 냈다.
K팝 한류를 대표하는 팀 중 하나다. 지난 3월 지드래곤을 비롯 태양, 탑(T.O.P), 대성 등 네 멤버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3번째 재계약을 했다.
애초 빅뱅은 지난 4월 미국 대형 대중음악 축제인 ‘코첼라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을 통해 완전체로 컴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 페스티벌이 10월로 연기된 데 이어 결국 취소되면서 빅뱅 컴백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그 와중에 지드래곤은 상반기에 중국 본토 브랜드 광고 모델로 발탁되는 등 한류스타로서 여전히 공고한 위상을 확인했다.
2016년 한한령 이후에 본토 유명 브랜드가 현지 광고 모델로 한류스타를 섭외해 대규모 홍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날 지드래곤의 컴백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도 세계 곳곳의 소셜 미디어가 들쭉거리고 있다.

조여정·고준 달콤살벌 부부로 호흡...‘바람피면 죽는다’

내달 2일 첫 방송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추는 조여정과 고준의 모습이 담긴 메인 포스터가 배일을 벗었다.
‘바람피면 죽는다’ 측은 2일 살인 범죄 소설만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 강여주(조여정 분)와 신체 포기 각서를 쓰고 결혼한 이혼 전문 변호사 남편 한우성(고준)의 투 사이 담긴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먼저 여주가 자신의 세계인 서재 안에서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갈을 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칼끝에 묻은 피의 정체를 앞으로 그녀의 칼끝이 향하게 될 곳은 어디일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여주의 뒤에 앉은 남편 우성은 극한의 공포

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우성의 흔들리는 동공과 숨이 막힌 듯 벋어 이를 잡은 손은 마치 자신의 목숨을 부여잡은 듯 긴장감을 선사한다.
제작진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조여정-고준 배우의 달콤 살벌하고, 아찔하게 빠져드는 반전 부부의 ‘킬링 케미’를 보여줄 예정”이라며 “선명하고 개성 강한 인물들과 스텝 넘치는 에피소드로 웃음과 재미, 공포와 통쾌함을 동시에 안겨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 ‘황금빛 내 인생’ 등을 만든 김형석 PD와 지상과 첫 시즌제로 큰 사랑을 받았던 ‘추리의 여왕’의 이성민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김영대, 연우, 송옥숙, 정상훈, 이시연, 김예원, 홍수현, 오민석 등도 출연한다.



12월2일 처음 방송한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2주 연속 정상

93만 돌파...할인권 배포에 주말 관객 5만명 증가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이 개봉 2주 차에도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상을 지켰다.
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지난 30일부터 전날까지 주말 사흘 동안 38만4000여 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 수는 93만1000여명으로 1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다.
영화는 지난달 21일 개봉 이후 별다른 경쟁작 없이 12일째 선두를 이어가고 있다.
추석 연휴에 개봉한 가족 영화 ‘담보가는 2위, 유아인·유재명 주연의 ‘소리도 없이’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4위는 재계봉작 ‘위플래쉬’, 5위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파이널컷’, 6위는 ‘미스터트롯: 더 무비’가 차지했다.
주말 관객은 소폭 증가했다. 신작 개봉은 주춤했지만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이 풀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말 사흘 동안 전체 관객은 61만5000여명으로 전주(56만4000여명) 대비 5만명가량 늘었다.
이번주에는 이제훈·신혜선·조우진 주연의 범죄오락 영화 ‘도굴’이 개봉한다.
실시간 예매율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이 36.7%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도굴’이 27.7%로 그 뒤를 쫓고 있다.

가수 김나영 측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 벌금형...선처 없다”

“벌금 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

가수 김나영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소속사 네버랜드엔터테인먼트는 “김나영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대한 1차 고소 건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악플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선처를 호소하는 악플러도 있지만 무관용을 원칙으로 절대 합의 없이 대

응할 것”이라며 “벌금 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이 추측성 발언만으로 아티스트를 비롯한 수많은 스태프들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결과물을 왜곡하는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인 자체 모니터링과 팬 여러

분들께서 제보해주신 자료를 통한, 기타 범죄행위를 적발 중”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와 팬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나영은 ‘헤어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등이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